

퇴근길 40분, 창업을 설계하다

과거를 부정하던 내가 AI를 만나
미래를 꺼내기까지



머리를 비우고, AI와 대화하라



0~20분

음악을 틀고 복잡한 생각의
스위치를 끈다



20~40분

AI에게 생각을 털어놓으며
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로 흘러간다

오늘의 대화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
'모두의 창업' 참가 신청으로 이어졌다.

부정했던 과거가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

	5년 전	현재
과거의 경험	버려야 할 짐, 쓸모없는 것	새 출발을 위해 연결해야 할 핵심 자산
퇴근길 시간	지치고 죽은 시간	아이디어 발산과 구체화의 시간
AI의 역할	인식 부재	사고의 파트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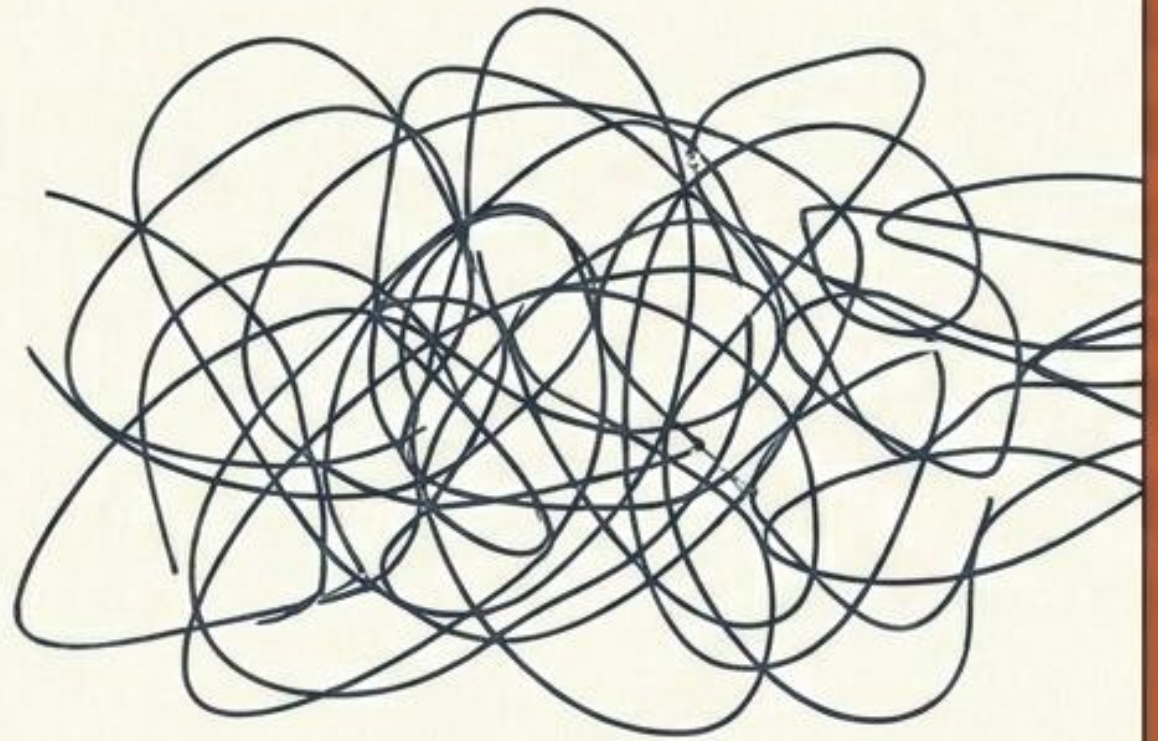
“새로운 시작은 너무 힘들다.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?”

흩어진 과거의 조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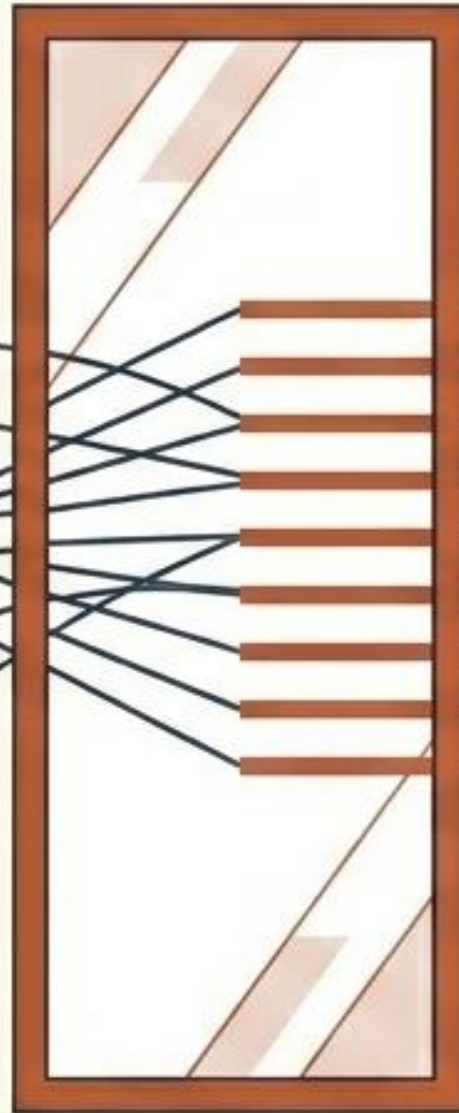


이것들은 버려야 할 과거가 아니라, 나의 다음 스텝을 만드는 씨앗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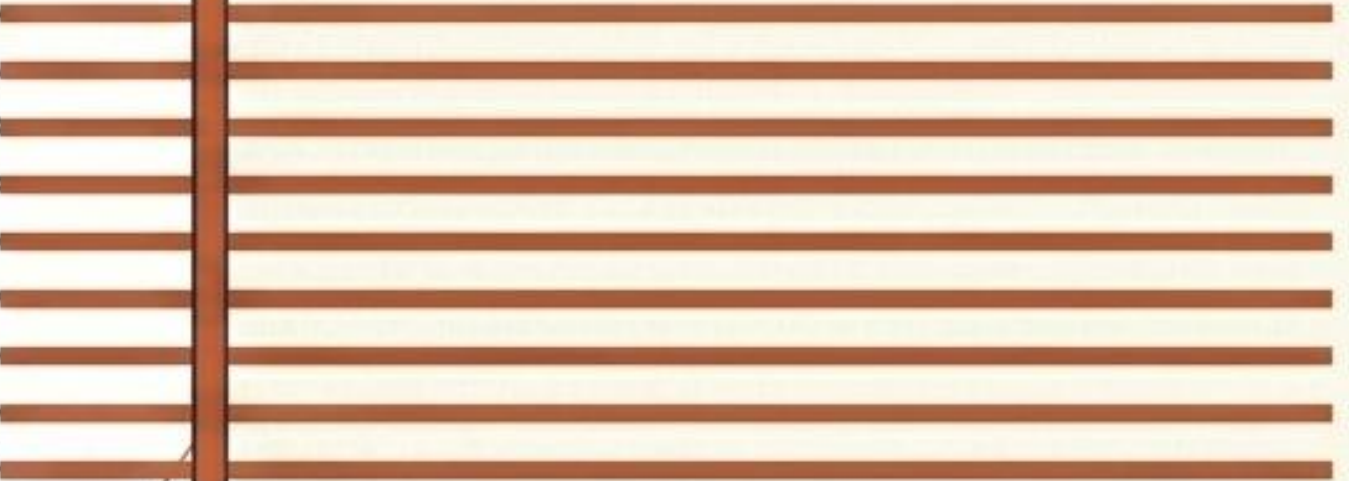
AI는 속도가 아니라 '사고의 파트너'다



흐릿한 아이디어, 흩어진 생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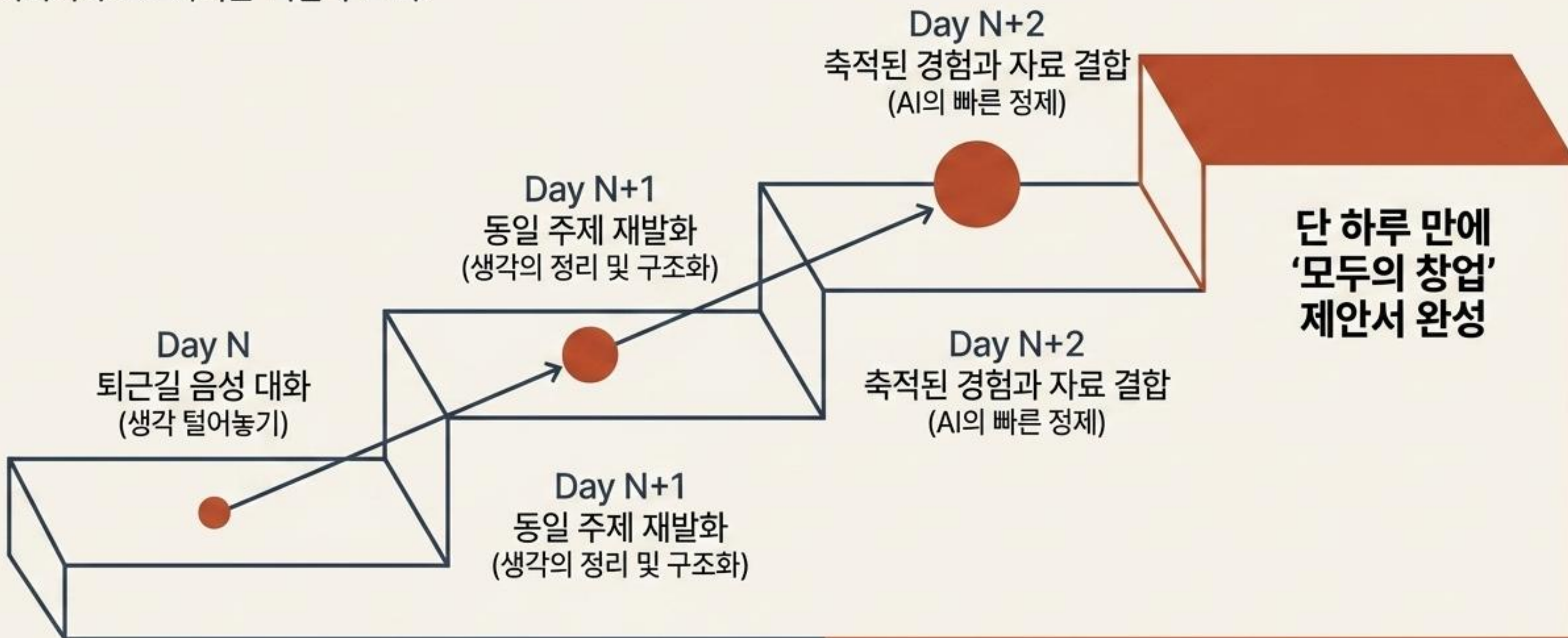
윤곽이 잡힌 구조, 사고 자체의 성장



AI를 쓰면 왜 더 잘 생각하게 되는가 — 이 질문의 답이 나의 브랜드다.

누적과 심화가 만든 압축적 결과물

AI는 단순한 생성기가 아니다. 매일의 대화가 누적되며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는 '학습 루프'다.



두 번째 도전: 자격증 특화 AI 학습 플랫폼 구상

문제 정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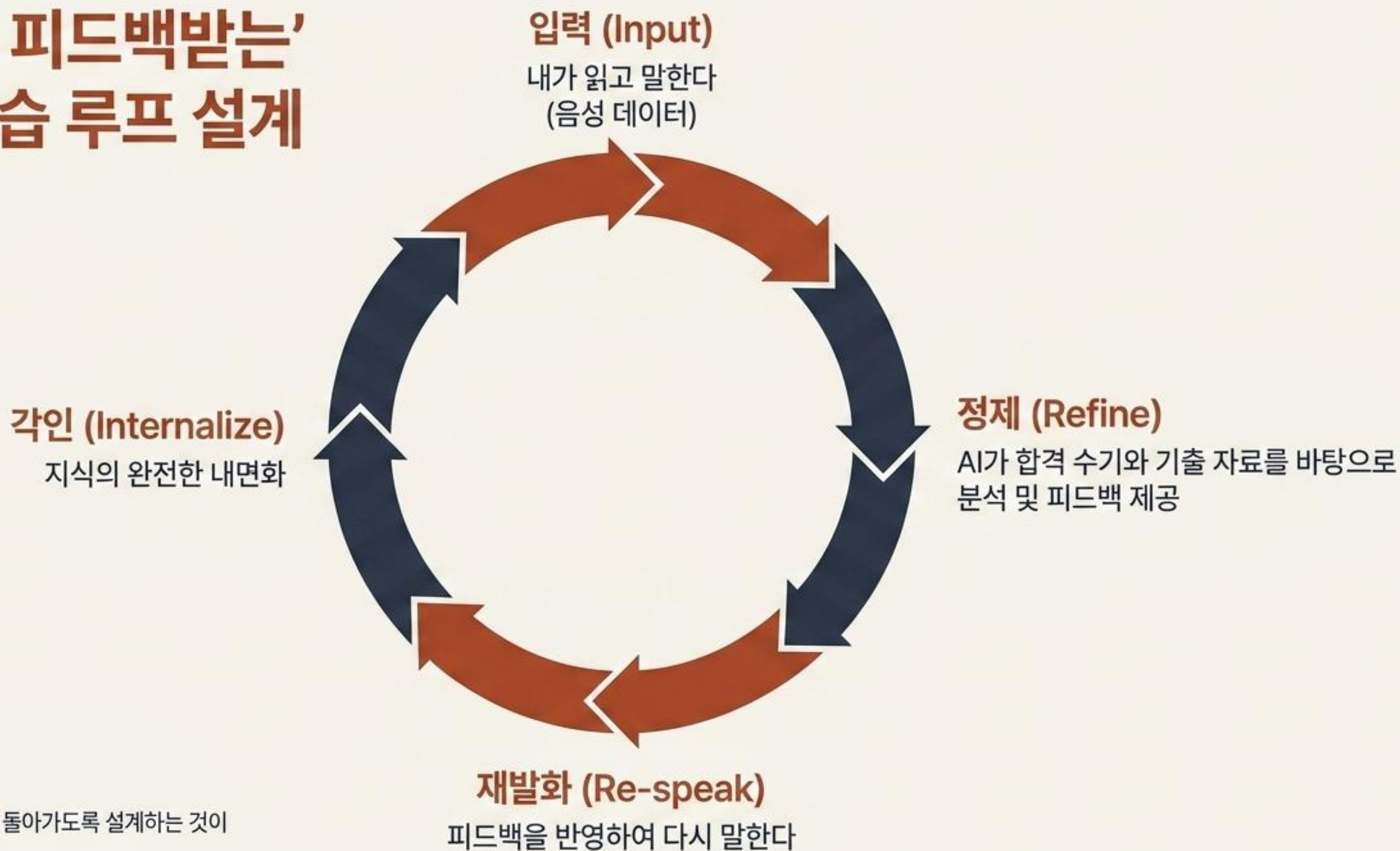
자격증 시험의 본질은 반복을 통한
암기와 이해의 내면화다.
하지만 혼자 하는 반복은 방향을 잃기 쉽다.

솔루션 아키텍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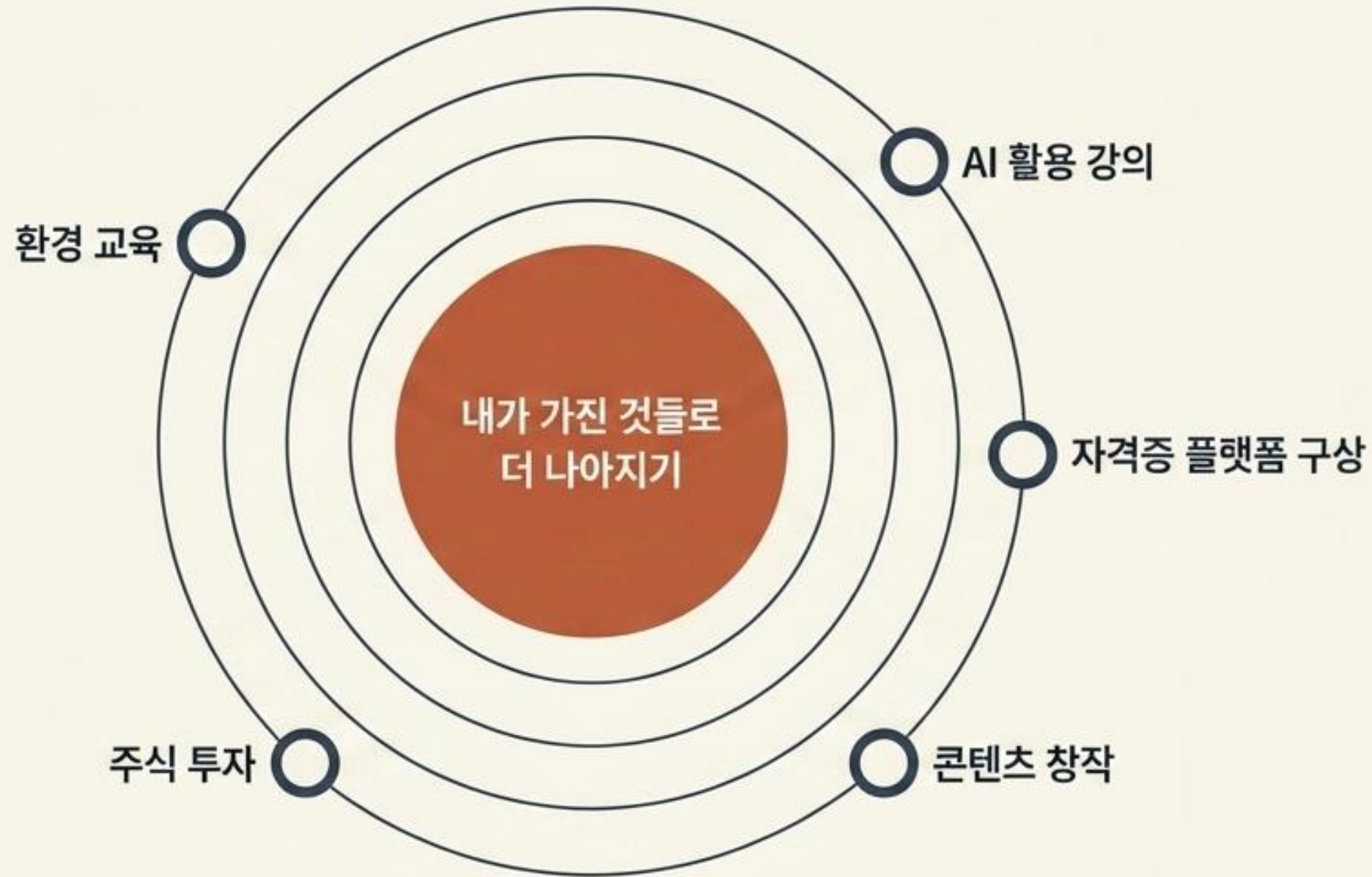
사용자가 직접 말하고 녹음한 내용을
생성형 AI가 분석·정제하여 피드백하는
맞춤형 반복 학습 시스템.

'말하고 피드백받는' 무한 학습 루프 설계



이 루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
플랫폼의 핵심 경쟁력.

모든 것은 하나의 축으로 공전한다



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활동들은 사실 나의 과거를 발판 삼아 전진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.

**목표는 작아도 된다.
쌓이면 크게 된다.**

오늘의 퇴근길 40분도 그 쌓임의 일부다.

